

일주문



현성 스님, 정월 불우이웃돕기 청소년교회연합회 총재 현성 스님은 1월 1일 안양교도소 재소자 2500명에게 떡국 대중공양을 베풀고 서대문구 불우이웃에게 쌀 50포대를 보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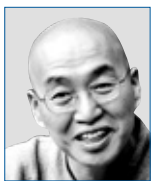
제5회 저소득층 장학금 전달 의성 교문사 주지 호성 스님은 1월 30일 KBS한국방송과 함께 교문사에서 제5회 저소득층 장학금 전달 및 문화탐방을 개최한다.



정범 스님, 보현의집 원장으로 서울 육천암 주지 정범 스님은 구암 19일 노숙인 보금자리 보현의집 원장으로 부임했다.



일강 스님 8번째 내비뒀 콘서트 김제 금산사 템플스테이 원장 일강 스님은 2월 25-26일 금산사 내비뒀 콘서트와 작은음악회를 개최한다.



정토희 미주강연 희망세상 만들기 정토희 지도법사 범륜 스님은 2월 3일 미국 LA에서 '2012 범륜 스님과 함께하는 미주강연-희망세상만들기'를 개최한다.



대불련, 겨울 템플스테이 최경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은 2월 9-12일 충주 석송사에서 겨울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법현 스님, 세계 3대 인명사전 등재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김영중)는 한국음악과 교수 법현 스님이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모두 등재됐다고 밝혔다. 법현 스님은 ABI 미국인명정보(2012년), IBC 영국캐리브지국제인명센터(2011-2012년), 미국 마르퀴즈 후즈후 인명사전(2012)에 모두 등재됐다.

법현 스님은 현재 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 중요무형문화제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불교음악연구소장, 코리아나예술단장, 태고종 문화종무부보, 세계문화예술콘텐츠교류연맹이사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법현 스님은 불교음악과 무용관련 4권의 저서와 43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50여 개국에서의 불교문화 공연을 해왔다. 2000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악보로 꼽히는 불교 음악 악보인 각필악보를 세계 최초로 발견했으며, 2003년 영산재학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법현 스님은 "한국 불교를 불교문화예술로 세계화시키고자 한 노력을 인정 받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힘 닿는데 까지 계속 펼칩니다”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진오 스님 베트남 500km 완주



“달리는 스님”으로 유명한 진오 스님(앞)이 ‘베트남에 108개 화장실 지어주기’ 기금마련을 위해 베트남에서 마라톤을 하고 있다.

“이제 시작이죠. 앞으로 한국-베트남 관계개선을 위한 저의 마라톤은 계속 될 것입니다.”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돕기 위해 울트라마라톤 대회에 참가해온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진오 스님이 1월 6-13일 베트남에서 진행한 500km 마라톤 일정을 마치고 16일 귀국했다.

이번 행사는 베트남 시골 초등학교 108개 화장실 지어주는 ‘자비의 해우소 신축지원’ 기금마련을 위한 것.

진오 스님은 8일간 김영하·황철수·정정하 씨 등 대한울트라연맹 회원 6명과 함께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60-88km를 달려 베트남 평야성(300km)과 경상북도 자매결연 도시인 타이웬성(200km) 등 500km 구간을 완주했다.

진오 스님은 2011년 교통사고로 뇌절반이 사라진 베트남 이주노동자 토안(28) 씨의 뇌 복원 수술에 필요한 후임금 마련과 이주노동자들에게 생명의 헬멧 보내기 등을 위해 마라톤 도전을 했다. 지난해 4번의 울트라 마라톤 등 모두 10차례의 마라톤을 완주해 ‘달리는 스님’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번 마라톤을 위해 진오 스님은 토안의 고향인 평화성을 찾아 달렸고, 토안의 모교인 찌오판 초등학교에 화장실 1호를 신축했다.

진오 스님이 화장실을 짓는 이유는 2012년 한국과 베트남 수교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아직 응어리진 베트남인들의 한국인에 대한 감정을 풀기 위한 이유가 크다.

“베트남 전쟁 때 한국군의 만행을 기록한 증오비(憎惡碑)가 베트남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의 앙심을 풀어보고자 근심을 해소 한다는 뜻에서 해우소를 짓기로 했습니다. 모르는 척 덮어버리기에는 우리나라가 그들에게 진 빚이 너무 크거든요.”

진오 스님의 500km 마라톤은 베트남에서도 화제가 됐다. 현지 방송사에서 진오 스님과 울트라마라톤 회원의 마라톤을 촬영했으며 타이웬성과 평화성 경찰의 호위 덕분에 진오 스님과 회원들은 무사히 완주를 할 수 있었다.

진오 스님은 “마라톤을 하면서 베트남 사람들의 친절함을 느낄 수 있었다. 화장실을 짓는 데 한화 200만원의 비용이 들어 2억 원이 넘는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힘 닿는데 까지 마라톤 모금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오 스님은 2021년까지 10년간 108개의 화장실을 신축하기로 발원하고 지원 대상 마을을 찾아 108km를 달릴 예정이다. 오는 8월에 베트남을 찾아 108km를 뒀 예정이며 9월에는 독일에서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700km 울트라 마라톤 완주를 시도할 계획이다.

후원계좌: 농협 301-0088-4874-71 (예금주: 꿈을 이루는 사람들) (054)458-0755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1월 16일 준공된 동국대 경주캠퍼스 커팅식. 신기숙사는 지상 9층 규모로 342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신기숙사 및 사라림 준공

재학생 2000여명까지 수용

동국대 경주캠퍼스 기숙사 및 비구니 학인스님들의 수행관 공사가 마무리됐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김영중)는 1월 16일 '신기숙사 및 사라림' 준공식을 교내 백상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 김영중 경주캠퍼스 총장, 동국대 이사 성타 스님(경주 불국사), 최양식 경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비구니 학인스님들 수행관인 사라림은 면적 316.24㎡(96평), 연면적 1373.45㎡(416평)에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6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신기숙사는 면적 1050.63㎡(318평)에 연면적 7203.22㎡(2179평)로 지상 9층 규모로 171실(2인 1실)로 구성됐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이날 두 시설의 준공식으로 재학생의 23%인 2000여 명의 기숙사 생활이 가능케 됐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복장 의례 되살릴 터”

복장장구 최초 복원한 김명환 유상아트 대표



“불상 조성 시 사리나 다리니 등을 넣는 복장물은 성보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65개 복장품목을 비롯해 복장의를 복원하는 것은 불교 전통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 될 것입니다.”

통일신라시대에 시작돼 불교의례로 자리 잡았지만 현대에 들어서 각 사찰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던 복장물 장구가 3년간의 연구과정을 거쳐 복원·규격화됐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의 불교 무형문화재 조사와 의례 연구 로드맵 일환으로 복장물 실태조사가 진행될 가운데 발표된 성과다.

유상아트(대표 김명환)는 최근 최태성 중앙승가대 교수, 중앙승가대 박사과정의 세립 스님과 함께 금강산 유점사본(조상경)(1824)을 근거로 복장물 의례절차와 장엄구를 복원해 ‘불복장 장엄구 세트’를 개발했다.

불복장에는 부처님의 사리를 담은 사리함이나 불경을 비롯한 각종 전적, 다리니, 의복, 그리고 불상을 조성한 사람들의 기원을 담은 발원문 등이 들어간다. 복장에 관한 경전인(조상경)에는 불상 등에 복장을 넣는 취지와 함께 복장에 들어갈 물품과 그 크기와 개수, 넣는 방법까지 자세히 밝혀 놓고 있는데 청·황·적·백·흑의 오색실이나 오색번, 오향과 오약, 오곡 등을 넣어 봉안해야 한다. 복장물 중 하나인 후령통에 담기는 물품을 제외하고서 만도 65개에 달한다.

45년간 활동, 청동 주물로 유기,

범종, 대장경 동판 등을 제작해온 김 대표는 최 교수의 추천으로 제25회 불교미술대전에서 출품한 후령통이 입선하며 본격적인 불복장 장구 규격화에 나섰다. 유상아트는 특히 출원 하는 한편 연구진과 함께 2011년 9월 중앙승가대에서 복장의 시 복원 시연을 펼치기도 했다.

유상아트 복장장엄구세트에는 13종의 물품을 담은 오보병 5개, 오방경 1개, 오향연화 1개, 오면원경 1개, 오사리함이 금장으로 구성돼있다.

김 대표는 “복장장엄구 세트를 구입한 오방색부터 현재 경전에 일치되지 않고 시행되고 있다. 또 경전에 나타난 물품을 구하기 힘들어 의례의식에 맞추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한 상품을 넘어 복장장엄구세트가 불복장의례 복원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www.yoosang.co.kr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유상아트가 개발한 복장 장엄구 세트

신라는 화랑을 육성하여 삼국통일을 이룩하였습니다. 불교가 우리 지도이념이 되려면 젊은 불자를 육성하여야 합니다



1,500년전 신라는 화랑도를 설치하여 젊은이들에게 군사훈련과 함께 불교를 가르쳤습니다. 화랑들은 훗날 삼국통일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젊은 세대들이 불자로 육성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전국 군부대의 1,600개 종교시설 중 군법당은 410곳에 불과하며, 군승법사는 135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국 350개 대학 중 불교학생회가 조직된 대학은 144개에 불과하고, 여기서 불교활동을 하는 대학생은 2,000여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본회는 젊은 불자 육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사단법인 대불을 설립하고, 이번에 젊은 불자 육성 발원법회를 개최합니다.

전국 대학에 학생불자와 불교동아리가 꽃 피어야 합니다. 군승법사 없는 군법당에도 부처님 가르침이 전해져야 합니다.

젊은불자육성 발원대법회

일시: 2012년 2월 18일 오후 3시 장소: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공연장

[주요 프로그램]

주제발표: 왜 젊은불자에게 기대하는가? 젊은불자 육성사업 실적보고 젊은불자 육성사업 증진계획 보고 대학생 불자들의 국악연주와 율동 만해시 낭송 “당신을 보았습니다” 외 대불련 동문들의 성악, 춤, 연주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동참 문의 (02) 720-1963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사단법인 대불

E-mail: cogenlee@hanmail.net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74-1번지 한국수입업협회빌딩 4층

전화번호: (02)720-1963 팩스: (02)3483-0772